流麗하며 簡略한 蓮花座에 앉아 있다。甬筒과 撞座下帶가 없는 點은 中葉에 가까워지는 李朝鍾의 退化經路를 表示하고 있다。

(銘文) 萬曆八年庚辰九」月日京畿道安城」地瑞雲山石南寺」大鍾鑄重二百斤」大施主列成必兩主」大施主貴今保體」大施主長慶兩主

(總高 七六㎝、上徑 三六㎝、口徑五六㎝ 口徑厚三·三㎝)

安城郡의 石塔(二)

申 榮 勳

(5) 道基洞 三層石塔 總高 一四·五尺

洞里入口 左側 동산위에 있다。六枚의 地臺石上에 七尺이나 되는 높은 二重基壇을 갖었고 塔身은 거칠게 다듬은 屋身과 屋蓋石이 각각 一石으로 조금씩 줄어졌는데 三層塔身만은 重疊하는 二石으로 되었다。隅柱는 基壇에만 있고 蓋石은 平均値高 〇·三二尺의 平板石 一枚로 만들었다。下層基壇과 初層塔身의 蓋石에 副緣이 있는 外에 別다른 꾸밈이 없다。

露盤은 塔身과 같은 手法이나 上面에 深 〇·六尺의 擦柱孔을 갖었다。高峻한 劣作 麗末作인 듯하다。

(6) 七長寺 三層石塔 現高 約 六·五尺

圓通殿前 九尺許 石垣上에 位置한 이 塔은 破塔에 가까우나 樣式으로 미루어 慧昭國師碑(螭首 龜趺遺存)와 同代의 것으로 推定된다。(碑는 高麗文宗十四年建立 靑寧六年一〇六〇)

(7) 石南寺 五層雙塔 (東塔 高 約 七·九尺 西塔 高 約 七·六尺)

大雄殿 石垣前에 細長한 五層塔이 서로 제짝을 바꾸어 놓인채 위태롭게 서있다。西塔의 地臺石과 東塔의 一層屋蓋가 또 西塔 東塔의 四層屋蓋가 서로 바뀌어졌다。兩塔이 모두 塔身 上下에 일단 작은 턱을 만들어 蓋石의 받침과 連結되도록 하였다。屋蓋받침 三級 塔身엔 隅柱 西塔 一層 塔身에는 南側에 方形龕室을 꽜다。各各 覆鉢과 그 위에 相輪의 破片을 세워놓고 있다。塔系는 和順郡多塔峯의 그것들과 酷似하다。十三世紀頃作品

(8) 靑龍寺 三層石塔 總高 六·二尺(寫眞)

大雄殿前에 놓인 이 塔은 下層基壇이 半沒되어 있는데 上層基壇은 中央에 撐柱가 하나 섰고 隅柱가 있으며 內曲한 副緣이 달린 甲石으로 構成되었다。基壇身받침과 初層塔身의 받침에는 몰—딩이 있다。隅柱、蓋石받침은 四級 落水面은 얇고 轉角은 날카롭다。三層蓋石 上部에는 徑 二寸의 擦柱孔이 있고 그 위의 圓形物은 寶珠로 推定된다。大雄殿側으로 面한 部分에 破損이 尤甚한데 壬亂때 被害라고 한다。大雄殿의 石垣과 同代인듯 보여지고 位置도 原狀인듯 한데 同寺는 高麗元宗六年(一二六五)에 叛建되었다고(寺蹟記) 傳하지만 統一期의 退化된 樣式으로 보아 年代가 溯上되는 作品으로 推定된다。

(9) 淸源寺 大雄殿前 七層石塔 總高 二七·五尺

玄化寺 七重石塔과 塔身의 手法을 같이하고 있으나 보다 細長하고 峭峭하다。五層과 六層의 塔身은 바꿨고 隅柱는 太線으로 陰刻하여 塔身과 區別하고 있다。七層屋蓋石은 合閣지붕을 하였고 그 위에 寶珠一個를 얹었다。屋蓋받침은 二級 十四世紀頃의 作品인듯 하다。塔과 同時代의 銀入絲香爐가 있었는데 一九一五年頃 盜去되었다고 한다。

(10) 同寺 大雄殿 側三層石塔 現高 五·一尺

同寺 後面 山麓 原寺址에서 移建하였다는 이 破塔은 本來의 모습을 찾

기 힘드나 蓋石의 落水面、蓋壇의 蓮瓣、覆鉢、寶珠 등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면 대략 一三世紀頃의 作品인듯 推定된다。

(11) 瑞雲山麓 三層石塔

復原이 不可能하게 破損 倒壞되어 있는 이 塔材는 크기로 봐서 三層인듯 하나 基壇材는 없다。 十三世紀頃의 作品인듯 推定되는데 近處엔 寺址가 없다고 古老들은 傳하고 있다。

資料

◎ 新羅崇福寺碑片 (黃壽永)

月城郡 外東面 末方里寺址에서 發見된 破片一個로서 崔致遠撰의 崇福寺碑로 推定된다。 出土年月日은 未詳인데 初行에 「寺乃 聖大王追福口」의 二行小字가 있으며 次行에 「必通」 最終行에는 「日」 合計大小字十字가 判讀되었다。 이 崇福寺碑片은 日帝時에 數個가 發見되어 (慶州博物館所藏) 約三十字가 判讀된 바 있다。 〔末松保和博士 「新羅史研究近況」 (「朝鮮文化研究」所收) 同 「新羅史의 諸問題」〕 朝鮮金石總覽」上卷에 실려있는 同碑寫本에 의하면 小字註記는 아니보이나 大三字가 보이고 있음에서 이곳은 一行 六十二字로 推定되었다。 이 斷片은 金庠基教授의 所藏인 바 (一〇×八・五㎝ 厚 0・8㎝) 拓本은 梨大 金和英孃의 手苦에 의하였다。

◎ 尙州邑伏龍里幢竿支柱 (李夏中)

路邊畓中에 남아있는 바 兩柱基는 〇・九五m의 間隔으로 東西로 對立하고 있다。 支柱에는 別다른 特異性은 없고 二穿孔이 있을 뿐이며 基底部는 方形을 이루었다。 支柱 高 三・六m 側厚 〇・七m 花崗石으로 年代는 新羅中期以後로 推定된다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尙州郡No二三)

◎ 石造佛菩薩像等의 發見

文教部에 報告된 바에 의하면 全北 完州郡 高山面 三奇里 봉성사터에서 三奇國民學校五學年 擔任 이승철先生과 同級학생들이 鄕土研究資料收集中 지난 五月 十八日 다음과 같은 四점의 石造美術品이 발견되어 三奇國民學校에 保管中이라 하는 바 모두 新羅統一期의 優雅한 作品이라고 한다。

(1) 如來座像 H、1m (頭缺의 結跏趺座像으로 右肩偏袒으로 右手降魔印左手胸部)

(2) 菩薩立像 H、1・1m (頭缺이나 天衣垂下되어 腹下에서 ×形交叉。 裳帶雙條이며 右手垂下 左手胸前이며 頸環腕釧의 莊嚴이 있음)

(3) 八角單瓣蓮花臺石 H、0・4m W、0・6m 一個 (佛座 또는 石燈臺座)

(4) 八角竿石 (琵琶奏樂座像、舞踊像 等이 各面에 있고 間柱에는 花文彫飾)

◎ 金銅菩薩立像의 發見 (金永培)

公州郡 正安面 臺城里 明谷寺址에서 金銅菩薩 小立像 一軀가 發見되었다。 全面에 磨滅이 甚하나 光背와 臺座가 具存한 新羅統一期의 佛像이다。

全高 五・六㎝、身高 四・一㎝ 臺座高 〇・八㎝ 光背高 五㎝ 同幅 二・三㎝